



빙설신천지에서 만나보는 '빙설왕국'



54번 궤도전차, 장춘역, 장춘 영화촬영소옛터박물관... 등 장춘 역사 및 문화의 전형적인 대표들이 얼음조각 형태로 장춘빙설신천지에서 완벽하게 재현되었다. 얼음 장인들의 솜씨로 아름다운 '빙설왕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2019년 장춘빙설신천지가 처음으로 대중들과 대면한 이래 지금까지 6번째이다. 장춘빙설신천지는 독특한 빙설자원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로 감상성과 오락성이 융합된 겨울철 보물 관광목적지로 되었다.

이번 빙설시즌에도 장춘빙설신천지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 '시간회랑(光影长廊)', 타임(时光)우체국 등 여러 핫플레이스가 관광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을 가져다주었다. 520미터 길이의 얼음미끄럼틀과 1,314미터의 '공중눈표류(空中雪漂流)'가 해내의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랭장고 마그네틱(冰箱贴), 노트북, 그리고 장춘 지방 특색이 있는 작은 장식품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한편, 장춘빙설신천지는 천정산관광휴양지내에 위치해있는데 그중 천정산스키장은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전문스키장의 하나이다. 스키장내에 있는 다양한 난도로 구성된 13개의 슬로프가 스키애호가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우리 함께 장춘빙설신천지에서 빙설왕국의 매력을 즐겨보자!

/ 글 손맹번기자 / 사진 길림일보



장춘중태해양세계, 빙설놀이 새롭게 개장



이번 빙설시즌에 장춘시 조양구 신민거리와 청화로 교차점에 위치한 장춘중태(中泰) 해양세계가 새롭게 개방된 가운데 빙설락원(빙설공원)이 추가되었다. 빙설락원내에는 눈으로 만든 다양한 작은 가옥과 얼음미끄럼틀 등을 설치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순록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해양과 빙설의 이중 매력을 체험하면서 다채로운 겨울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풍부한 빙설놀이외에도 중태해양세계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완벽한 부대시설과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었다. 여러가지 겨울 특색 미식이 잘 준비된 관광객센터에서 관광객들은 따뜻한 음식을 즐기며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다.

이번 승격을 통해 중태해양세계는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가정오락의 우선 선택지로 되었으며 이로부터 장춘의 문화관광시장을 풍부히 했다. 장춘중태해양세계는 가족여행, 친구 파티, 학교의 소양교육 활동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따뜻한 친자 체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게 될 것이다.

/ 글 손맹번기자 / 사진 길림일보

